

미국의 이주정책과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의 형태*

주종택**

단독/순천향대학교

Joo, Jong-Taick (2011) "US Immigration Policy and the Pattern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rom Mexico"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changing U.S. immigration policy on pattern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rom Mexico and on the local socioeconomic structures of the migrant-sending society. In the beginning, Mexican villagers have responded rather passively to the U.S. policy, but they currently are reacting actively to the new policy. Many households opt to send more migrants than before, and migrants who are already working in the U.S. want to stay there permanently. As more migrants avoid California in order to escape excessive patrols, instead choosing eastern and central areas for crossing the U.S.-Mexican border, the migrants are scattering far and wide in the U.S. In addition, several families absent themselves entirely from the village, upon deciding to migrate to the U.S. All told, the impact of U.S. policy on the patterns of migration from Mexico is less serious than expected because of the flexible and dynamic migration strategies of Mexican households, as confirm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from Mexico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ressive U.S. policies.

Hence, recent U.S. policies fail to control migration from Mexico, but they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Mexican communities. The weakening social ties between the migrants and the migrant-sending community have resulted in socioeconomic difficulties in the village. Decreasing remittances have caused severe damage to the local economy, which leads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declin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e village. The weakening network between migrants and their community does not contribute much for the local sociocultural activities. Some families are completely disintegrated after the severance of relations by some migrant family

* 이 논문은 2009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수 연구년제에 의해 연구하였음.

** Jong-Taick Joo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Rep. of Korea (jtjoo@sch.ac.kr).

members. Also the migrants are less influential in community affairs than previously. In conclusion, the rapid changes in the patterns of migration have incurred irreversible negative impacts on the migrant-sending society.

Key Words: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U.S. immigration policy, Mexico, migrant workers, patterns of migration / 국제노동이주, 미국의 이주정책, 멕시코, 이주노동자, 이주유형

서론

이 글에서는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가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의 형태와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주자 및 이주자가 속한 가구와 마을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미국은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노동이주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왔지만, 많은 멕시코의 이주자들은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국경을 넘어왔다.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서 미국 내의 멕시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미국에는 2,66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천만 명은 멕시코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이다(Delgado Wise 2006, 36). 특히 1990년 이후에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약 40만 명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다(Delgado Wise 2006, 36; Escobar et al. 2003, 126). 멕시코 사회에서 미국으로의 노동이주는 사회작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이주의 경제적 효과는 해외의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멕시코에서 흔히 “미그라돌라레스”(migradólars)라고 불리는 송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105억 달러, 2004년에는 166억 달러에 이르렀다(Ruiz 2006, 47; VanWey et al. 2005, 84).

미국정부는 대부분의 불법 혹은 합법의 노동이주자들이 멕시코에서 오는 것을 고려하여 자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멕시코인의 이주를 통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미국의 이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42년에 시행된 브라세로 계획이었다. 이 계획으로 1964년 이 제도가 종료될 때까지 약 460만 명의 멕시코 이주노동자

들이 초청노동자의 자격으로 미국의 농업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브라세로 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많은 불법 이주자들도 함께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일이 빈번해지자,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주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65년 이민귀화법령을 제정하였고, 1976년과 1978년, 그리고 1980년에 계속해서 이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1986년에 시행된 이민개혁과 통제법령은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이주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의 고용주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로부터의 이주가 끊임없이 증가하자, 미국정부는 불법 노동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불법 이주개혁과 이주자 책임법령을 발표했다. 2002년에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로부터 불법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멕시코 국경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현재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국경을 강화하는, 매우 논란이 될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미국정부는 멕시코로부터의 이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주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국경을 통제하려는 소위 “토르티야 커튼”(tortilla curtain) 정책을 추진해왔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이주정책이 불법 혹은 합법 이주자의 수의 증가에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국경 순찰이 강화되고, 국경의 장벽이 서부지역에서 점차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이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는 “코요테”라고 불리는 불법 이주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크게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과거에 국경을 넘기 위해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가 많이 밀집된 도시지역은 현재는 순찰이 강화되어 이주자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험난하고 위험한 사막지역이나 산악지역을 선택하면서 국경을 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해졌으며,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Binford 2005, 32). 2000년에 들어서면서 코요테들이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는 데 도와준 대가로 받는 비용은 개인당 800~1,300 달러에 달한다(Stephen 2001, 199). 이것은 1980년대에 비해 2-3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한편 과거에는 국경을 넘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혀서 풀려난 다음에

한두 번 더 시도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20세기말에 이르면서 이주자들이 국경지역에서 미국의 관리들에게 적발되어서 추방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1900년에서 1990년까지는 매년 평균 20,000명이 적발되어 추방되었으나,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그 수가 2배로 증가했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연 평균 180,000명을 넘어서고 있다(Hagan et al. 2008, 66). 특히 9/11 사태가 발생한 다음 달인 2001년 10월에 미국은 ‘Patriot Act’라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관리들에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지 의심되는 이주자들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Hagan et al. 2008, 65). 이런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와 국경통제의 영향으로 2006년 중반 이후에 이주자의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Passel and Cohn 2009, 3).

이렇게 미국의 이주정책과 국경 통제 방식이 이주자들에게 불리한 형태로 계속 바뀌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노동이주자들은 생존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이주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히 국경을 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주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 이주하기 이전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고향 방문과 재이주 등 이주한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만 했다. 물론 이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이주정책만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주정책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적으로 멕시코로부터의 국제노동이주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와 가구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주정책과 국제노동이주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와 관련한 많은 연구 중에 상당수는 주로 이주의 원인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의 결정과정에 관련된 주요한 요인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임금격차와 함께 멕시코 농촌의 빈곤과 사회제도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의 이주가 경제적 빈곤, 불안정한 토지제도, 주기적 경제위기, 고용기회의

감소, 농업생산성의 변화, 농산물가격의 하락(Cohen 2001; Faulstich et al. 2001; Roberts 1985; Wiest 1973) 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농촌사회에 지속되면서 늘어난다고 본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일은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수반되고 무시하지 못할 비용이 들고,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는 이주현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위에서 제시한 원인이 이주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사는 농민들 모두가 궁극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주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주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주의 역사적 변화와 더불어 이주의 유형과 단위, 그리고 이주자의 수의 변화, 이주 후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주의 형태에 있어서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순환적 혹은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초국가적 자발적 조직 같은 이주 후의 미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적응이 여기서는 주요한 관심사이다(Arizpe 1981; Durand and Massey 1992; Luque González and Corona Cuapio 1992; Singer and Massey 1998; Wilson 1993; 1998). 이런 연구는 이주의 추세를 알아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흔히 주로 좁은 범주에서 이주자의 개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이주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행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주 환경이나 법적,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주자와 이들이 속한 가구의 행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국제노동이주와 경제발전의 관계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동이주의 결과로 얻어지는 송금이 멕시코 농촌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관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송금이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농촌사회에 송금이 유입되면서 농민들이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 더욱 많은 돈을 사용하고, 지역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송금에 기대는 경제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되며,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불평등의

확산으로 사회적 갈등의 증가, 경제적 격차의 확대, 물가 상승도 초래된다 (Burrell 2005, 20; Conway and Cohen 1998; Dinerman 1978; Gammage 2006, 93; Kearney 1986; Mines and DeJanvry 1982; Reichert 1981; Rubenstein 1992; Wiest 1984). 반면에 송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멕시코 농촌사회에 송금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 부와 함께 토지와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농업자본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이 자극된다고 주장한다(Adams and Page 2005; Durand 1994; Durand et al. 1996; García 2000; Jones 1995; Malkin 2004, 81; Massey and Parrado 1994; Padilla 2000; Parrado 2004, 79; Pérez 2005, 68; Taylor 1999; Taylor et al. 1996; Wong et al. 2007, 138-139). 실제로 농촌사회에서는 송금의 두 가지 측면이 다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으로는 송금 수입으로 인해서 제한적이지만 농촌의 극심한 빈곤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제한적 의미에서 새로운 농촌산업이 발전하기도 하지만, 송금을 통해서 분명하게 미국과 멕시코의 임금격차가 확인되면서 멕시코 농촌사회에서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따라서 송금의 영향에 관해 모든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발전시키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송금의 경우에도 이주자들의 이주 방식이나 내용에 의해 송금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주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주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향후의 송금의 규모나 사용 방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국제노동이주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한 시각에서 수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이주를 다루는 세 가지 주요한 관점(이주자를 받는 사회, 이주자,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 중에서 학자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특정한 관점에 집착하게 된다(DeVoretz 2006, 391). 이주정책과 이주형태의 변화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주의 다양한 측면에 관여하는 이주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이주형태의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당연히 이주자를 받는 집단과 이주자, 이주자를 보내는 집단을 포괄하는 이주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주지역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주정책이 변화하면 이것이 이주자나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 그리고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 모두에서 행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이주정책을 중심으로 이주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주정책이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구의 성격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자의 사회적, 인구적, 경제적 특징은 다양해지고(Rivero-Fuentes 2004, 2003), 이에 따라 이주정책을 수용하는 이주자나 이주자가 속한 가구의 대응도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서의 국제노동이주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주정책과 더불어 이주의 형태가 시간의 흐름,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 가구의 발달주기,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형된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어떻게 이주가 발생하고, 서로 다른 이주의 성격과 유형에 의해 이주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흔히 말하기를 개인과 가족, 시간, 일자리, 그리고 마을과 관련된 요소들이 이주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Pries 2004, 5). 따라서 달라지는 이주의 유형의 맥락에서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의 지역 상황, 가구의 의사결정 과정, 가구의 발달주기(development cycle), 이주의 시기적 변화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연구방법과 조사지

조사지와 국제노동이주

현지조사는 오아하카 계곡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오아하카 시로부터 30km정도 떨어져 있는 ‘산 환 델 에스타도’(San Juan del Estado)라는 муницип이오(municipio)에서 실시되었다. 이 마을에서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는 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했던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가 보편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서서히 개인중심의 이주대신에 가족구성원 전체가 이주하게 되었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 마르코스(San Marcos), 비스타(Vista), 엔세나다(Ensenada) 같은 지역에 몰려서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이주에 관한 정보의 교류도 촉진되고 이주비용과 위험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가난한 계층도 이주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마을에서 약 절반 정도의 가구가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몇몇 가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완전히 마을을 떠났다. 미국의 이주자들이 보내는 송금의 액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송금이 마을과 가족의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와 있다. 지금은 이주하기에는 너무 빈곤한 여건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주에 참여하거나 곧 이주를 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마을 단위의 국제노동이주자에 관한 공식 통계가 매년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주자의 수를 알기 어렵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주한 다음에 전혀 소식이 없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주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이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대략 미국에 800명에서 1,000명의 이주자가 있다고 한다. 조사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한 163가구의 표본 중에는 2006년을 기준으로 76가구에 194명의 이주자가 있었다. 당시의 마을 전체 가구 수가 549인 것을 고려하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다. 조사지에 관한 기초적 자료는 1993년부터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되었다.



그림 1. 멕시코 내 오아하카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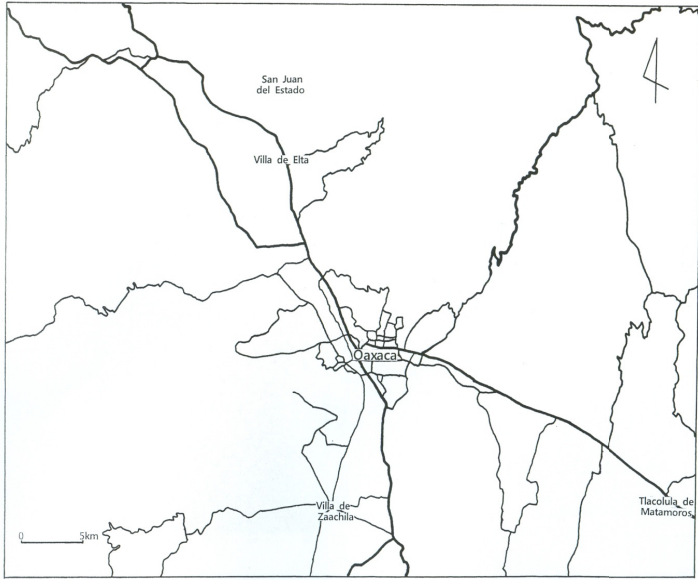


그림 2. 오아하카와 산환 델 에스타도의 위치

조사방법

국제노동이주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과정과 형태에 관계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을 2006년과 2010년에 수행하였다. 현지조사에서 질적, 양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주와 인구구성 및 사회문화적 관계에 관한 각종 중요한 문헌자료,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이주과정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 관습에 관한 일차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별히 집중적 공식비공식 면접을 활용하면서, 이주의 유형, 형태, 영향을 파헤치기 위해 이주에 관한 마을 사람들의 행위와 담론을 직접 관찰하였다. 인구, 이주자의 수, 그리고 이주지역과 이주기간, 이주자를 보내는 가구의 수 등 이주에 관련된 기존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서스 및 각종 통계에 나타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이주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양적 자료를 파악하여 면접 및 참여관찰에서 제기되는 마을 사람들의 이념과 행위가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알아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주의 형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행위와 담론을 분석하고,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의 이주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이 이주자들의

이주행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이주정책의 변화가 성, 계층, 가구 규모, 직업 등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가구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이것에 대처하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주정책의 이해와 이주형태

미국의 이주정책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이주자가 있는 가구나 없는 가구나 비슷하다. 다만 새롭게 이주를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이주노동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을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최근의 국경 통제나 미국에서의 일자리에 관한 소식을 물어본다. 한편, 오아하카의 다른 마을에서도 미국으로의 이주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시내나 다른 마을을 방문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주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알아온다. 이밖에도 신문, 방송, 잡지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주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면 미국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10년 전만 해도 이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화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주자와 마을에 남아있는 가구원들이 통화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통화요금도 소득수준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어서 국제전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짧게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이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Joo 2000, 177). 그러나 지금은 전화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어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훨씬 용이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필요할 시기에 언제라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주정책이 강화되어도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쉬워졌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이주정책을 인식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면서, 마을에서 미국의 이주정책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는 않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달라진 미국의 이주정책에 따라 각 가구의 이주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적 자원이나 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한 가구에서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구에서는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이 중에서 가구의 규모와 발달주기, 그리고 마을에서의 직업과 농지소유 같은 요소들이 새로운 이주전략을 짜는 데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가구원의 수가 많으면 상황을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이주자를 조정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면 이주가 어려운 여건에서는 1-2명의 가구원만 먼저 미국으로 보낸 다음 이들이 안 잡히면 나머지 가구원들을 보낸다. 또한 가구의 발달주기도 무시하지 못하는 변수인데,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학교를 다녀야 할 시기이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가장이나 부부만 먼저 이주를 하고 나중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같이 미국으로 간다. 예전에는 영어 구사능력이 이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즉, 영어를 그다지 못해도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즐기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학력과 더불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이 허락하면 자녀들이 중·고교를 마치고 난 뒤에 미국으로 취업시키려 노력한다. 직업이나 농지의 소유도 이주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현재 마을이나 오아하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마을 내에서 경작 가능한 비교적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을 포기하고 모든 가구원들이 이주하지는 않는다. 이런 가구에서는 잉여 노동력이 있을 경우에 일부의 가구원들만 이주를 결정한다. 물론 이런 구분이 항상 엄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이주정책의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요한 이주형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주자 수의 증가

근래에 미국의 국경을 건너는 일이 더욱 힘들어지고 비용도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주에 관한 미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 국경을 건너는 일이 위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예 국경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지금 가능한 한 많은 가구원들이 이주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런 까닭으로 미국의 억압적인 이주정책의 실시는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를 소수의 이주에서 다수의 이주로 변화시킨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조사지의 가구당 평균 이주자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면접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1994년에는 집중면접 대상이었던 163가구 중에 미국으로의 이주자가 있었던 가구는 31개였고, 이주자의 수는 53명으로, 가구당 이주자의 수는 1.71명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조사 집단에서 2006년에는 76가구에서 194명의 이주자가 있어서 가구당 2.14명이었고, 2010년에는 92가구에서 231명으로 평균 2.51명이 이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계속해서 가구당 이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새롭게 이주자를 보내는 가구는 1명의 이주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이주자가 있던 가구에서는 전보다 훨씬 많은 가구원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주자를 보내는 가구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가구원이 이주를 하는 것보다 많은 가구원이 함께 이주하여 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도모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이주했던 가구원의 권유로 고향에 남아 있던 가족 중의 일부가 이주에 참여한다. 물론 이주를 하는 가구원이 점차 증가하다보면 가족 모두 미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구 전체가 떠나면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를 한 결과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마을 내의 이주자 통계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계절적 이주에서 장기 이주

미국으로의 이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주자들이 미국에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체류하기보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주한 다음에도 고향에서의 농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예를 들면 봄에 마을에 와서 밭에 옥수수나 다른 생계작물의 씨를 뿌리고 가을에 다시 돌아와서 수확을 도왔다. 그밖에 빵이나 치즈를 만들어 팔거나 가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농촌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주자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일손을 도왔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계절적 이주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면서 주기적 이주의 형태는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물론 지금도 가족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부모가 모두 연로하거나 병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가끔 마을로 돌아와서 일을 거드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런 일은 보기 드물어졌다. 계절적 이주가 줄어들고 장기 이주 혹은 영구이주의 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가구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구의 규모가 커져서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이 많을 때에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가구원이 많은 집에서는 이주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미국의 이주정책은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들의 정착 과정과 이주의 근본적인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점차로 이주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는 대신에 영구이주 혹은 장기이주 같은 반영구이주의 형태를 선호한다(Reyes 2001, 1198; Riosmena 2004, 273). 특히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미국에 도착하게 된 최근의 이주자들은 한번 국경을 넘은 다음에는 가능하면 미국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Marcelli and Cornelius 2001). 이런 현상은 구체적인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2년 이전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이주노동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갈 가능성은 60-70%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3년부터 국경통제가 서서히 강화되면서 1996년에 이르러 그 확률은 45%에 머물게 되었다(Durand and Massey 2004, 12). 이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조사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주자들은 일단 미국에 넘어오기만 하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는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 장기간 머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Reyes 2004, 316). 이렇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미국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혹은 비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

고향방문 빈도의 감소

계절적 이주의 감소와 더불어 이주자의 고향 방문의 빈도도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주자들이 고향을 자주 방문하여 마을 내에 좋지 않은 문화적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Joo 2007, 101-142), 이주자들은 마을의 주요한 행사나 축제에 수시로 참석하여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지속해왔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지는 6월 24일의 산 환 축제나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순절의

3번째 금요일에는 많은 이주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즐겼다. 이주자들은 이런 시기에 마을을 방문하면서 축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마을을 위해 기부금도 냈다. 이와 더불어 마을에 관한 소식도 접하고,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도 제공하며,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함께 데리고 가기도 했다. 이렇듯 국경을 넘는 일이 용이할 때에는 이주자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이주자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마을에서 이주자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주자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에게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이주자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찾아주며 축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에 자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주정책이 달라져서 이주자들이 고향을 방문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주자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즉 이주자들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마을 사람이나 마을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마을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돌보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부모가 마을에 남아있는 경우에 이들이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돈을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형태로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이주자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든 부모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가족 전체의 이주

이주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노동력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가구원들이 미국과 멕시코에서 각각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미국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과 멕시코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과거와 같이 국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적은 비용으로 넘을 수 있을 때에는 이렇게 유연하게 노동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무리 없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나 자녀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린 형제들이 성인이 되면

이주에 함께 참여하고, 그 후에 나이가 많은 형제나 자매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로 수시로 유연한 전략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멕시코에 각각 별도의 살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가구로 합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가족 전체가 이주하게 된다. 전에는 보통 남편과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이주노동을 하고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멕시코에 남아있었는데, 국경을 넘나들면서 비용을 낭비할 바에는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마을에서 미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많아지면서 멕시코에 남아있는 여자들이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점에서 가족 전체가 이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모두 데리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조사지에서도 가구 전체의 이주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1994년에 전체 조사 대상이었던 163가구 중에서 2006년에 9가구가 가족 모두 이주하였다. 2010년이 되면 15가구로 늘어났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12년 동안 9가구만 전체 가족이 이주를 하였으나, 최근 4년 사이에 6가구가 완전히 이주하여 점차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자의 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완전히 미국으로 떠나는 가구의 수와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거주지역의 다양화

조사지에서 미국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사람들은 2000년대 초까지는 주로 티후아나를 거쳐서 미국의 샌디에고로 넘어가는 경로를 선호하였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교통편을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다양한 농장과 서비스업 등 일자리도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거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몰려서 살고 새로 온 이주자들도 이 지역을 정착지로 선택해왔다. 그렇지만 불법 이주자에 대해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국경장벽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주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일자리가 줄고, 이 지역에서 불법 이주를 제한하는 각종 법안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결국 미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많아졌다(Striffler 2007, 675).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텍사스나 애리조나 등 과거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경로를 따라서 이주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 마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Orrenius 2004, 294).

일단 미국의 중부나 동부지역의 국경을 넘게 되면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 그 지역에서 다시 사막이나 산악지역을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가기는 쉽지 않고, 또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캘리포니아를 구태여 찾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상당수의 이주자들이 전통적인 정착지를 떠나서 미국의 내륙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 현재는 텍사스나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국경지역뿐 아니라, 위스콘신, 오레곤, 뉴욕, 뉴저지, 루이지애나 등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주지역이 넓게 확산되면 고향을 수시로 찾기는 더욱 불편해져서 방문의 빈도는 더욱 낮아지고, 이것은 영구 이주자가족 전체의 이주를 촉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자연히 내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이주자들끼리 친밀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주형태와 마을의 상호작용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주자 자신들과 이주자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국경을 넘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주자가 속해 있는 마을이나 이주자가 없는 가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은 이주자와 마을의 관계,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주형태가 반영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송금의 축소와 불확실성

최근의 미국의 이주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이주 형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멕시코 사회가 벌어들이는 송금의 감소를 가져와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 그동안 멕시코의 농촌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

는 송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Joo 2009) 송금의 감소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수반한다. 과거에는 이주자가 가족의 경제활동을 돕거나 마을의 행사에 참여하려고 방문할 때 그동안 모은 돈이나 선물을 가져왔다. 멕시코 은행의 송금 서비스가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고향의 연로한 부모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송금을 직접 가져오게 만드는 이유였다. 본인이 직접 마을로 오기 힘든 경우에는 미국에서 함께 일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마을을 방문할 때 대신 보내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주자들의 마을 방문이 어렵게 되고, 이주자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지역도 내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멕시코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이렇게 마을과 직접 접촉이 어렵게 되면서 송금을 가져올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송금의 액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던 송금도 언제 올지 모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국경 지역에서 일했던 때와는 달리 미국의 내륙지역에 노동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 영구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고향에 송금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서 저축을 한다. 특히 가족 전체가 이주해버리는 경우에는 마을 내로 송금이 전혀 유입되지 않아서 마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구당 이주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가구에서 이주자가 발생하면서 송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래 가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새롭게 나타나는 이주자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경로를 거치면서 송금의 규모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 송금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불확실해지면 생산과 소비 분야에서 마을 내의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밖에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저하되면 실업률도 높아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

농촌경제의 피폐화

조사지에서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의 이주 대열에 참여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이주정책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을 위해 고향을 계절적으로 방문하던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농업생산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런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 마을의 공동 토지가 더 이상 생산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즉, 보유하고 있는 공동 토지가 생산성이 낮은 한계지일 경우에 이주노동자들은 미련 없이 농업생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동 토지는 생산량이 적고 소작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신 경작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공동 토지의 경우는 몇 년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면 경작권을 빼앗기지만, 이주노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주형태의 변화로 공동 토지는 생산에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생산성이 높고 관개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사유지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주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돌아올 것에 대비하거나, 부모나 다른 형제에게 토지를 사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즉 이주자들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소작을 줄 수 있는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사유지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되면 이주를 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농지 가격의 상승은 다른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주의 활성화 이후에 이주자와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면 토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마을과 이주자간의 사회관계 약화

산 환에서 미국으로 이주노동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에 몰려서 생활했다. 이 도시들은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산 환 출신의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나 일자리, 고향에 관한 소식을 듣는 데 매우 편리하였다. 이주자들은 자신들끼리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서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물론 이들 중에는 산 환보다 더 큰 지역인 사포테코 사람들의 모임이나 오아하카 출신들의 모임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 초국가적 공동체를 활용하여 이주자들은 본인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고향에 전달할 돈이나 물건을 전달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많은 고향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고향 마을과의 교류도 빈번해지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립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익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는 초국가적 공동체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우선 이주자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빈도가 낮아지면서 고향

마을과의 교류는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를 온 사람들은 점차로 초국가적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주저한다. 특히 이주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언어문제도 심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이 된 사람 중에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일부의 사람들은 최근에 불법 이주자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이 훨씬 강화되었기 때문에 멕시코인들로 구성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붙잡힐 우려가 적어져서 유리하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의 다른 내륙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국가적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예전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주자들이 마을을 자주 찾지 않게 되면서 이주자들이 고향 마을과 맺는 유대가 약화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주자들이 마을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축제나 행사가 있거나 마을에 큰 사업이 있을 때 이주자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여 마을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주자들이 미국의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의 입장에서 이주자들의 도움을 예측할 수 없어서 큰돈이 필요한 사업이나 행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한다고 한다.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

이주형태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바뀐 이주정책에 대응하여 가구 내에서 이주자 수를 늘리거나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등 합심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일부의 가구에서는 이주자들이 생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가족들과 관계가 약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이주자와 가족들 사이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소식이 완전히 두절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미국으로의 이주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족 관계의 악화 혹은 해체, 부부의 이혼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으로 간 이주자들이 처음에는 고향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송금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전하면서 서서히 소식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 간에는 불신감이 자리 잡는다. 부부의 경우에는 종종 연락이 서서히 줄어들거나 단절되면서 부부가 자연스럽게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서 20여 년간 서기로 일했던 마리셀라는(Maricela,

51세) 이주자 부부들이 이혼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1년에 남편이 미국으로 일을 하러 간다고 할 당시에 나는 무니시피오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남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마을에서 품을 팔아서 생활했다. 당시에 마을에서 받는 월급으로 그럭저럭 생활은 가능했지만 자녀가 4명이어서 힘들었다. 그러다가 남편은 멕시코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고, 당시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간 뒤 처음에는 소식도 자주 전하고 2-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보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첫 해에는 마을을 방문하다가 2년 후부터는 오지 않았다. 남편의 말로는 국경을 건너다가 국경 순찰대에 붙잡혀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송금액도 조금씩 줄더니 2년 후에는 전혀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남편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소식이 뜸해졌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이주자로부터 남편이 오아하카에서 온 여자를 만나서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08년에 마을 사람들로 부터 남편이 오아하카에서 온 여자와 헤어지고 미국에 사는 멕시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마을에는 미국으로 이주를 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거나 부부 사이가 악화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런 결과로 전에 비해 아버지가 없는 여가장 가구가 크게 증가한 실정이다.

결 론

미국은 자국 내의 정치경제적 사정에 따라 멕시코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을 거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노력했다. 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통제와 국경의 강화 등의 이주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이주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각 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국제노동이주의 시기와 방법, 이주자와 이주자를 보내는 가구의 수, 이주지역,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과 고향 방문 등 이주형태의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미국의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많은 멕시코의 이주자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미국의 이주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나 개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주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와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가 이주자를 받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경로를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이주정책이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 정책에 맞서서 이주자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강력한 이주정책의 영향을 벗어난다(Eversole 2005, 312). 결국, 많은 경우에 더욱 억압적인 미국의 이주정책의 등장은 이주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이한 이주형태를 유도할 것이다(Reyes 2001, 1198; Riosmena 2004, 266).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구의 이주전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조사지의 경우가 모든 멕시코 농촌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지보다 많은 수의 이주자를 보내는 마을도 있고 적게 보내는 마을도 있다. 그렇지만 조사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다른 마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이주정책이 실제로 각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조사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이주정책의 변화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더욱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주자를 보내는 가구에서는 이주자 수를 늘리기도 하고, 이미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이주노동자들은 마을을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영구이주를 택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주자들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되었던 미국의 서부 지역의 국경통제가 극심해지면서 동부나 중부 지역의 국경으로 이주자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것은 미국에서 이주자들의 거주지역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극단적으로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두 가구를 유지하면서 위험한 국경을 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를 결정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주정책이 멕시코에서의 국제노동이주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멕시코 가구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이주전략으로 인해 예상보다 크지 않다. 이것은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자의 수가 억압적인 미국의 이주정책의 실시 이후에도 줄지 않고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새로운 미국의 이주정책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새롭게 멕시코를 떠나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이주자들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Durand and Massey 2003, 247).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이주정책은 그다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미국의 이주정책은 멕시코로부터의 이주를 근본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주자를 보내는 멕시코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주자와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이주자를 보내는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송금이 줄어들면서 마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농업생산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마을의 경제적 침체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했다. 이주자와 마을의 네트워크가 훼손되면서 마을의 사회문화적 활동이 감소되고, 일부의 가구에서는 이주자와의 연락이 단절되면서 가족의 해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마을에서 이주자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급격한 노동이주 형태의 변화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이주자를 보내는 멕시코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참고문헌

- Adams, Richard H. Jr. and John Page(2005), "Do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33, No. 10, pp. 1645-1669.
- Arizpe, Lourdes(1981), "The Rural Exodus in Mexico and Mex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5, No. 4, pp. 626-649.
- Binford, Leigh(2005), "A Generation of Migrants: Why They Leave, Where They End Up," *Report on the Americas*, Vol. 39, No. 1, pp. 31-39.
- Burrell, Jennifer L.(2005), "Mig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of Fiesta Customs in Todos Santos Cuchumatán, Guatemal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2, No. 5, pp. 12-32.
- Cohen, Jeffrey H.(2001), "Transnational Migration in Rural Oaxaca, Mexico: Dependency, Development, and the Household," *American Anthropologist*, Vol. 103, No. 4, pp. 954-967.
- Conway, Dennis and Jeffrey H. Cohen(1998), "Consequences of Migration and Remittances for Mexican Transnational Communities," *Economic Geography*, Vol. 74, No. 1, pp. 26-44.
- Delgado Wise, Raúl(2006), "Migration and Imperialism: The Mexican Workforce in the Context of NAFT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2, pp. 33-45.
- DeVoretz, Don J.(2006), "Immigration Policy: Methods of Economic Assessmen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0, No. 2, pp. 390-418.
- Dinerman, Ina(1978), "Patterns of Adaptation among Households of US-Bound Migrants from Michoacan, Mexico,"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 No. 4, pp. 485-501.
- Durand, Jorge(1994), *Más allá de la línea*, México: fondo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Durand, Jorge and Douglas S. Massey(1992), "Mex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7, No. 2, pp. 3-42.
- _____ (2003), "The Costs of Contradiction: US Border Policy 1986-2000," *Latino Studies*, Vol. 1, No. 2, pp. 233-252.
- _____ (2004), "What We Learned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in Jorge Durand and Douglas S. Massey(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 1-14.
- Durand, Jorge, Emilio A. Parrado and Douglas S. Massey(1996), "Migradollars and Development: A Reconsideration of Mexican Cas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0, No. 2, pp. 423-444.
- Escobar, Agustín et al.(2003), "Mexico-US Migration: Moving the Agenda Forward,"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1, No. 2, pp. 125-137.
- Eversole, Robyn(2005), "'Directed to the Poor' Revisited: Migrant Remittances and Development Assistance," i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289-322.
- Faulstich Orellana, Marjorie et al.(2001), "Transnational Childhoods: The Participation of

- Children in Processes of Family Migration,” *Social Problems*, Vol. 48, No. 4, pp. 572-591.
- Gammage, Sarah(2006), “Exporting People and Recruiting Remittances: A Development Strategy for El Salvador?,”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6, pp. 75-100.
- García Zamora, Rodolfo(2000), *Agricultura, migración y desarrollo regional*, Zacatecas: Universidad Autónoma de Zacatecas.
- Hagan, Jacqueline, Karl Eschbach and Nestor Rodríguez(2008), “U.S. Deportation Policy, Family Separation, and Circula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2, No. 1, pp. 64-88.
- Jones, Richard C.(1995), *Ambivalent Journey: US Migration and Economic Mobility in North-Central Mexico*,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Joo, Jong-Taick(2000), “The Economic Crisis of Mexico and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rom Rural Areas,”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3, No. 1, pp. 165-204.
- _____(2007),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Rural Sociocultural Changes in Mexico,”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Vol. 40, No. 2, pp. 93-124.
- _____(2009),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Mexico,”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2, No. 1, pp. 99-128.
- Kearney, Michael(1986), “From the Invisible Hand to Visible Feet: Anthropological Studie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5, pp. 331-361.
- Luque González, Rodolfo and Reina Corona Cuapio(1992), “La migración y la dinámica demográfica en Oaxaca” in J. Corbett et al.(eds.), *Migración y etnicidad en Oaxaca*,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pp. 13-18.
- Malkin, Victoria(2004), “We Go to Get Ahead: Gender and Status in Two Mexican Migrant Communiti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1, No. 5, pp. 75-99.
- Marcelli, Enrico A. and Wayne A. Cornelius(2001), “The Changing Profile of Mexican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New Evidence from California and Mexico,”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6, No. 3, pp. 105-131.
- Massey, Douglas S. and Emilio A. Parrado(1994), “Migradollars: The Remittances and Savings of Mexican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13, No. 1, pp. 3-30.
- Mines, Richard and Alain DeJanvry(1982),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Mexican Rural Development: A Case Stud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64, No. 3, pp. 444-454.
- Orrenius, Pia M.(2004), “The Effect of U.S. Border Enforcement on the Crossing Behavior of Mexican Migrants,” in Jorge Durand and Douglas S. Massey(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 281-298.
- Padilla, Juan Manuel(2000), “Emigración internacional y remesas en Zacatecas,” *Comercio Exterior*, Vol. 50, No. 5, pp. 363-370.
- Parrado, Emilio A.(2004). “U.S. Migration, Home Ownership, and Housing Quality,” in

- Jorge Durand and Douglas S. Massey(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 63-85.
- Passel, Jeffrey S. and D'Vera Cohn(2009), "Mexican Immigrants: How Many Come? How Many Leave?," *Pew Research Center Report*, July 22, pp. 1-21.
- Pérez, Ricardo(2005), "Unbound Households; Trajectories of Labor, Migration, and Transnational Livelihoods in (and from) Southern Puerto Rico," in Lillian Trager(ed.), *Migration and Economy: Global and Local Dynamics*, Lanham, MD: Altamira, pp. 49-75.
- Pries, Ludger(2004), "Determining the Causes and Durability of Transnational Labour Migration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Some Empirical Findings,"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2, No. 2, pp. 3-39.
- Reichert, Joshua S.(1981), "The Migrant Syndrome: Seasonal U.S. Wage Labor and Rural Development in Central Mexico," *Human Organization*, Vol. 40, No. 1, pp. 56-66.
- Reyes, Belinda I.(2001), "Immigrant Trip Duration: The Case of Immigrants from Western Mexico,"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5, No. 4, pp. 1185-1204.
- Riosmena, Fernando(2004), "Return Versus Settlement among Undocumented Mexican Migrants," in Jorge Durand and Douglas S. Massey(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 265-280.
- Rivero-Fuentes, Estela(2004), "Cumulative Causation among Internal and International Mexican Migrants," in Jorge Durand and Douglas S. Massey(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 201-231.
- Roberts, Kenneth(1985), "Household Labour Mobility in a Modern Agrarian Economy: Mexico," in G. Standing(ed.), *Labor Circulation and the Labor Processes*, London: Croom Helm, pp. 358-381.
- Rubenstein, Hymie(1992), "Migration, Development and Remittances in Rural Mexico,"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0, No. 2, pp. 127-153.
- Ruiz, Olivia(2006), "Migration and Borders: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2, pp. 46-55.
- Singer, Audrey and Douglas S. Massey(1998), "The Social Process of Undocumented Border Crossing among Mexican 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2, No. 3, pp. 561-592.
- Stephen, Lynn(2001), "Globalization, the State, and the Creation of Flexible Indigenous Workers: Mixtec Farmworkers in Oregon," *Urban Anthropology*, Vol. 30, No. 2/3, pp. 189-214.
- Striffler, Steve(2007), "Neither Here Nor There: Mexican Immigrant Workers and the Search for Home," *American Ethnologist*, Vol. 34, No. 4, pp. 674-688.
- Taylor, J. Edward(1999), "The New Economics of Labour Migration and the Role of Remittance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7, No. 1, pp. 63-88.
- Taylor, J. Edward et al.(1996),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 Population Index*, Vol. 62, No. 3, pp. 397-418.
- VanWey, Leah K., Catherine M. Tucker and Eileen Diaz McConnell(2005), "Community Organization,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Oaxa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0, No. 1, pp. 83-107.
- Wiest Raymond E.(1973), "Wage-Labor Migration and the Households in a Mexican Tow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Vol. 29, No. 3, pp. 180-209.
- _____(1984), "External Dependency and the Perpetuation of Temporary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R. E. Jones(ed.), *Patterns of Undocumented Migratio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Totowa, N.J.: Rowman and Allenheld, pp. 110-135.
- Wilson, Tamar Diana(1993), "Theoretical Approaches to Mexican Labor Migr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0, No. 3, pp. 98-129.
- _____(1998), "Weak Ties, Strong Ties: Network Principles in Mexican Migration," *Human Organization*, Vol. 57, No. 4, pp. 394-403.
- Wong, Rebeca, Alberto Palloni and Beth J. Soldo(2007), "Wealth in Middle and Old Age in Mexico: The Rol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1, No. 1, pp. 127-151.

Article Received: 2011. 04. 04

Accepted: 2011. 05. 10